

運氣理論을 應用한 針灸治療法

- 子午流注 鍼法과 奇經八法을 中心으로 -

I 緒論	2
II 本論	2
1. 『黃帝內經·靈樞』속에 나타난 避忌法	2
1) 『靈樞·陰陽繫日月』篇	2
2) 『靈樞·五禁』篇	3
3) 『靈樞·九鍼論』	3
2. 子午流注	4
1) 五輪穴	4
2) 概念	5
3) 『黃帝內經』과 連繫性	6
4) 運氣理論과 相關性	7
3. 奇經八法	9
1) 八脈交會穴	9
2) 靈龜八法과 飛騰八法	10
3) 運氣 理論과 相關性	12
4. 運氣學說을 應用한 鍼灸治療法의 可能性	13
1) 五運의 勝復·鬱發 關係를 응용한 鍼法	14
2) 客氣六步를 응용한 鍼法	14
3) 六十甲子를 응용한 鍼法	15
4) 三合五行을 응용한 鍼法	17
III 結論	19
ABSTRACT	19
IV. 參考文獻	20

運氣理論을 應用한 針灸治療法

- 子午流注 鍼法과 奇經八法을 中心으로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基郁 朴炫局

I 緒論

『黃帝內經·靈樞』에서는 人氣와 人神의 所在에 따른 鍼灸 避忌法은 當時(年·月 或季節, 日·月)의 患者의 人神의 氣運이나 神氣의 소재 부위에 따라 해당 부위의 治療 禁忌를 일종의 運氣의인 側面에서 論述하고 있다.

運氣 理論은 『黃帝內經』의 중요한 이론이며, 鍼灸學家들은 일찍이 運氣 理論과 鍼灸學의 重要的 意味를 主唱하고 있었다. 더욱이 子午流注와 奇經 八法에 있어서는 運氣의 十干十二支를 開穴이 進行되는 紀時를 응용하고 있다. 또한 子午流注와 奇經 八法の 運用에 있어 運氣 理論의 도입되어 鍼灸 治療法의 時空性의 理論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論者는 術數鍼灸 趨避法이 『黃帝內經』의 運氣學說을 바탕으로 하여 子午流注·奇經 八法の 基礎가 됨을 찾고, 아울러 子午流注와 奇經 八法에서 나타난 運氣 理論의 相關性과, 運氣 理論을 응용한 鍼灸 治療의 可能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II 本論

1. 『黃帝內經·靈樞』속에 나타난 避忌法

古代의 鍼灸治療學史에 있어 특수한 醫療趨避學說¹⁾이 있다. 이는 古代의 術數 醫療 行爲의 하나로 曆法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人氣와 人神의 소재에 따른 刺鍼法의 하나이다. 術數鍼灸의 趨避法은 古代의 時間治療學에 있어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黃帝內經』에서 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歷代 醫家들의 著作과 時間鍼灸治療學 方面²⁾에 影響을 미쳤다. 近代에 이르러 이를 “迷信”이라는 시각으로 폐기되어 醫學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鍼灸治療學에 있어 客觀的인 歷史 事實로 남아 있으니 術數鍼灸는 鍼灸醫學史 영역에 있어서 回顧할 만한 가치가 있다³⁾.

1) 『靈樞·陰陽繫日月』篇

本篇에서는 “足之十二經脈, 以應十二月 ……”

1) 林昭庚 外1人 『鍼灸醫學史』北京中醫藥出版社 1995 pp139-153

2) 漆浩 外11人 『子午流注·靈龜飛騰八法大全』中國醫藥科技術出版社 1993 pp315-356

3) 前掲書: 『鍼灸醫學史』 pp139-140

· 寅者, 正月之生陽也, 主左足之少陽. 未者, 六月, 主右足之少陽. 卯者, 二月, 主左足之太陽. 午者, 五月, 主右足之太陽. 辰者, 三月, 主左足之陽明. 巳者, 四月, 主右足之陽明. 此兩陽合於前, 故曰陽明. 申者, 七月之生陰也, 主右足之少陰. 丑者, 十二月, 主左足之少陰. 酉者, 八月, 主右足之太陰. 子者, 十一月, 主左足之太陰. 戌者, 九月, 主右足之厥陰. 亥者, 十月, 主左足之厥陰. 此兩陰交盡, 故曰厥陰.”⁴⁾라 하였다. 즉 생리학 방면에 있어 人身의 足十二經과 四時·十二月과 相應함을 밝히고 있으니 이는 運氣의 時間性的 範疇에 屬하는 概念이다. 文章 가운데 “寅者, 正月之生陽也”와 “申者, 七月之生陰也”에서 四時·十二月은 天地·陰陽之氣의 所藏과 人神之氣의 運行과 密接한 關係⁵⁾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本篇에서는 “正月, 二月, 三月, 人氣在左, 無刺左足之陽. 四月, 五月, 六月, 人氣在右, 無刺右足之陽. 七月, 八月, 九月, 人氣在右, 無刺右足之陰. 十月, 十一月, 十二月, 人氣在左, 無刺左足之陰.”⁶⁾라 하였다. 즉 正月의 人神은 生陽하여 初生의 陽氣가 左足少陽膽經에 있다고 하였으니, 月候와 足陰陽經脈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上述한 原文 가운데 各月에 따른 人體 陰陽之氣의 所在에 따라 足經의 禁刺를 언급하고 있으니, 例를 들면 正月, 二月, 三月의 人體의 陽氣가 左足 少陽經에 있으며, 各各 三個月씩 주관하여 少陽經 太陽經 陽明經으로 經脈이 循行한다⁷⁾. 그러므로 이것에 해당하는 經脈部位 다 穴位에는 人氣가 소재하므로 刺鍼이 不可하다. 本篇에서 論술한 人氣의 所在은 營衛之氣나 經脈氣血의 循行도 아니며, 人身과 天地가 상응

하는 陰陽之氣를 말한다⁸⁾. 이러한 人身之氣는 天地·四時萬物의 生長化收藏을 人體生理 기능과 十二月에 따른 禁刺의 經脈을 論述하고 있다. 그러므로 『靈樞·陰陽繫日月』篇은 人體生理의 해석에 있어 陰陽學說과 天人合一의 思想에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靈樞·五禁』篇

本篇에서는 “甲乙日自乘, 無刺頭, 無發蒙於耳內. 丙丁日自乘, 無振埃於肩喉廉泉. 戊己日自乘四季, 無刺腹去爪瀉水. 庚辛日自乘, 無刺關節於股膝. 壬癸日自乘, 無刺足脛, 是謂五禁.”⁹⁾이라 하였는데, 此篇에서 “自乘”은 日干과 季節五行의 屬性이 同一한 것으로 “甲乙日自乘”이란 甲乙日이 春季를 만남을 意味한다¹⁰⁾. 春季에는 甲乙일에 頭部와 聽宮穴은 禁鍼하며, 夏季의 丙丁日是 肩喉 廉泉部의 俞穴을 禁刺하며, 四季(二, 六, 九, 十二月)의 後八日是 腹部와 關節部의 穴位에 禁刺하며, 冬季는 壬癸일에 足脛部의 穴에 禁刺한다고 하였다. 또한 本篇에는 十干日에 該當하는 部位를 禁刺하는 理由를 充分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人身의 五行之氣는 頭面 肩項 腰腹 股膝 足脛의 順으로 旺盛하며 春夏秋冬의 五行旺盛順은 十干의 順序와 相應함을 內包하고 있다¹¹⁾. 그러므로 人身의 五行之氣 旺盛과 天地의 五行之氣와 相應하므로 四時·十日 鍼刺 禁忌法의 理論의 基礎가 되고 있다.

3) 『靈樞·九鍼論』

本篇에서는 “請言身形之應九野也. 左足應立春, 其日戊寅己丑. 左脇應春分, 其日乙卯. 左手

4) 楊柳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1980 pp316-317

5) 『上揭書』 pp317-318

6) 『上揭書』 p317

7) 『上揭書』 pp319-322

8) 前掲書: 『鍼灸醫學史』 pp140-141

9) 前掲書: 『黃帝內經靈樞譯解』 p428

10) 『上揭書』 p428

11) 『上揭書』 p143

應立夏, 其日戊辰己巳. 應喉首頭應夏至, 其日丙午. 右手應立秋, 其日戊申己未. 右脇應秋分, 其日辛酉. 右足應立冬, 其日戊戌己亥. 腰尻下竅應冬至, 其日壬子. 六腑膈下三臟應中州, 其大禁, 大禁太乙所在之日, 及諸戊己. 凡此九者, 善候入正所在之處, 所主左右上下, 身體有癰腫者, 欲治之, 無以其所直之日漬治之, 是謂天忌日也.”¹²⁾라 하였다. 此篇에서는 天上의 太一이 九宮을 가리켜 行하는데, 이것이 地理의 九野와 人身의 形神에 相應¹³⁾하는 ‘天人合一’¹⁴⁾ 思想을 表現하다. 따라서 本篇은 天上의 太一의 所在에 따라 九宮이 移遷하며 이에 따른 人神과 人氣를 살펴 癰腫의 禁刺法을 論述¹⁵⁾하고 있다.

『黃帝內經』의 避忌法은 人身의 氣나 或은 神이 時間의 推移에 따라 移動되거나 地理(九宮)에 따른 規則性에 의하여 移行되므로 鍼灸治療와 定穴法에 있어서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2. 子午流注

1) 五輸穴

五俞穴은 『靈樞·九鍼十二原』 “二十七氣所行皆在五俞也”¹⁶⁾ 하였고, 『靈樞·本輸』 “五輸所留六府之所與合”¹⁷⁾라 하였으며,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는 “余聞刺有五變 以主五輸”¹⁸⁾라

12) 『上揭書』 p581
 13) 前揭書: 『鍼灸醫學史』 p144
 14) 崔達永 外1人 『臟腑辨證論治』 成韓社 1985 p39
 15) 前揭書: 『黃帝內經靈樞譯解』 pp583-584
 16) 『上揭書』 p11
 17) 『上揭書』 p29
 18) 『上揭書』 p335

하였다. 즉 五輸穴은 임상에서 상용되는 重要한 俞穴로서 每陰經은 모두 井·榮·輸(原)·經 合穴을 갖고 있어 陰經은 三十個의 輸穴이 있으며, 陽經은 原穴이 하나 더 있어 즉 每陽經은 井·榮·輸·原·經·合穴을 갖고 있어, 陽經은 三十六個의 輸穴이 있어, 十二經은 總 六十六穴이며, 그 主治作用은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輸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을 가진다.

또한 五輸穴의 五行 屬性에 關하여 살펴보면 『難經·六十四難』 “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榮水, 陰俞土, 陽俞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¹⁹⁾라 하였는데, 五輸穴의 五行 屬性을 다음 【圖表1】과 같이 두 가지 側面에서 살펴 볼 수 있다.

【圖表1】五輸穴의 五行 屬性

陽干	庚	壬	甲	丙	戊
陽經	金	水	木	火	土
五輸穴	井	榮	俞	經	合
陰經	木	火	土	金	水
陰干	乙	丁	己	辛	癸

【圖表1】을 보면 左에서 右는 五行의 相生의 關係로 五輸穴 氣化의 次例로 相生하는 順序이고, 上에서 下는 五行의 相克 關係로 이는 一種의 表面 現象일 뿐 아니라, 內部로는 ‘夫妻剛柔陰陽天干相合’의 關係이다. 陽經의 五行의 屬性은 모두 陽干이며, 陰經의 五行의 屬性은 모두 陰干으로 그 가운데 乙庚, 丁壬, 甲己, 丙申, 戊癸는 相合 關係이다. 그러므로 이는 相克의

19) 本間祥白 井上惠理校閱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印行 p372

關係를 明確히 하는데, 실제로는 制中有生하며 表裏二經의 陰陽調和 相濟相生의 關係를 說明하고 있다.

陰井木, 陽井金의 理由를 張志聰은 “五臟之俞出于井木者, 五臟合地之五行以應生, 長, 化, 收, 藏之氣, 故從木火土金水而順行. 六腑之俞出于井金者, 六腑應天之六氣, 六氣生于陰, 而初于地, 從秋冬而春夏, 此陰陽逆順之氣也.”라 하여 五臟은 五行에 合하므로 春에서 처음 生하므로 井木이 먼저이고, 六腑는 六氣에 應하므로 陰에서 生하고 秋에서 始作하므로 井金이 가장 먼저이니, 이는 天地陰陽의 變化에 理致를 찾을 수 있고 하였다.

2) 概念

子午流注는 一種의 干支 紀時의 原理가 十二經 五輸穴에 開穴 時間에 따라 運用하는 鍼法이다. “子午流注” 鍼法은 金代 何若遇의 撰이 가장 먼저 보이며, 閻明廣 注의 『子午流注針經』中の 「流注經絡井榮圖」가 있다. 現在 流行하는 子午流注 鍼法은 明代 徐鳳의 『鍼灸大全』이 主가 된 取穴法이다²⁰⁾, 즉 『徐氏子午流注逐日按時定穴訣』, 『流注圖』를 “徐氏納穴法”이라 한다.

子午流注는 鍼灸 取穴 가운데 高次元의 理論으로 干支 推算과 經氣 盛衰에 따른 開穴 規律을 取穴하는 理論이다. 理論의 根據는 “五十營”에 基礎하고 있으며, 人體 經氣의 循行과 二十八宿의 天周에 相應함을 認識하고 있으니, 『靈樞·五十營』에 “五十營奈何? ……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千八分. 日行二十八宿, 入經脈上下, 左右, 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²¹⁾이라 하였으니, 이

20) 安昌範 外1人 『子午流注鍼法에 對한 文獻의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Vol3 pp61-82

21) 前掲書: 『黃帝內經靈樞經譯』 p182

는 經氣 盛衰의 流注에 開闔 取穴을 進行하는 것이다.

子午流注에 관한 命名 意義를 살펴보면, ‘子午’란 陰極과 陽極을 分別하는 表示로 子는 하루 中の 子時(23~1時)와 一年 中에는 冬月(11月)에 該當하며, 午는 하루 中の 午時(11~1時)와 一年 中에는 夏月(5月)에 該當하며, 子午는 正北方과 正南方을 分別代表하는 것이다. 氣機 升降 方面에 있어서는 子時는 卽 氣升함이고 午時는 卽 氣降함이니, 때문에 子午流注는 陰陽·時辰·方位·兩極의 標識이다.

‘流注’란 流注의 含意는 人體의 經氣가 不停止하여 子午陰陽의 消長 轉化를 띄고 있음을 말하며 아울러 子午氣機의 升降·浮沈·盛衰의 規律을 가지고 있다.

上述한 原理에 依據하여 鍼灸 開穴의 取穴 方法을 便히 “子午流注”라 하며, 子午에 따라 經氣 盛衰流注의 規律과 取穴 方法을 살펴보는 것이다.

子午流注의 基本 內容인 “納甲法”²²⁾은 天干을 地支에 配合하여 陰陽五行과 經氣의 進行 時辰을 再結合하여 取穴을 進行하는 것이며, “納子法”은 地支를 陰陽五行과 經氣 時辰에 配合하여 取穴하는 方法이다.

“納子法”은 補母瀉子의 取穴法으로서 臟腑·經脈·氣血·盛衰의 時辰과 各經症狀의 虛實의 結合으로 十二經各經의 所屬 五輸穴의 井, 榮, 俞, 經, 合의 五行屬性을 通하여 “虛則補其母, 實則

22) 黃瑀叙 外2人 『子午流注納甲法에 關한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7 第14卷 第1號 pp158-160

子午流注에 사용된 “納甲法”은 納干法이라고도 하며
① 陽進陰退 井穴爲始 ② 經生經, 穴生穴 ③ 陽日陽時開陽穴, 陰日陰時開陰穴 ④ 返本還原, 陽經遇俞過原, 陰經以俞代原 ⑤ 日干重見, 陽經氣納三焦他生我, 陰經血歸包絡我生他 ⑥ 夫妻(合日)互用의 원칙에 따라 개혈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規律성을 말한다.

瀉其者”의 原則에 따른 時間에 따른 取穴法이다²³⁾. 즉 各經의 經氣가 盛한 時間에는 該當經穴의 子穴을 瀉하고, 各經의 時間이 지나 氣血이 衰한 時間(盛한 時間 다음의 한 時辰)에는 該當經穴의 該當經의 母穴을 補한다. 예로 肺經의 氣血은 寅時에 最高로 旺盛한데 肺屬金 金能生水하며 合穴인 尺澤은 肺經의 子穴로서 肺實證에는 寅時內에 肺經의 合穴인 尺澤을 瀉하는데, 이는 “迎而奪之” “實則瀉其子”의 原則이며, 肺虛症에는 卯時에 肺經의 金俞穴인 太淵을 補하는데, 肺經의 氣血은 寅時의 旺盛한 것이 지나면 卯時에 肺經의 氣血이 衰하는데, 肺屬金, 土能生金肺經의 俞穴인 太淵은 土에 屬하고 肺經의 母穴로 肺虛症에 當연히 取穴하여 應用하고, 肺經의 氣血이 衰한 時間이 지나 卯時에는 俞穴인 太淵을 補하는데, 이는 原穴을 利用하는 것이다.

“納甲法”이란 患者가 來診한 年月日時의 干支를 推算한 後에 人體 十二 經脈의 五行 屬性에 配合하여 開穴을 取穴하는 方法이다²⁴⁾. 예를 들면 甲日 甲戌時 膽竅陰이라 함은 甲日 甲戌時에 膽經의 井穴인 竅陰穴이 開穴한다는 意味이며, 膽經은 陽干으로 甲木이 되며 甲日의 甲도 陽干이고 甲戌時의 天干인 甲도 역시 陽干으로 膽經과 甲日과 甲戌時의 天干이 모두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乙日 乙酉時 肝大敦을 살펴 보면 肝經과 乙日과 乙酉時의 天干이 모두 陰干인 乙로 一致하고 있다. 그러므로 年月日時를 表示하는 符號인 干支는 子午流注法의 應用時, 十二經臟腑의 腑는 陽干, 臟은 陰干으로서 天干에 附屬되어 陽經의 井穴은 반드시 陽日·陽時에 開穴하였고, 陰經의 井穴은 반드시 陰日·陰時에

開穴하는 規律性을 보여, 該當 經絡이 代表하는 天干은 반드시 井穴이 開하는 日·時의 天干과 完全히 一致하고 있다.

3) 『黃帝內經』과 連繫性

“子午”의 概念은 『靈樞·衛氣行篇』에 “歲有十二月, 日有十二辰, 子午爲經, 卯酉爲緯.”²⁵⁾라 하였으며, 그 理論的인 根據은 『靈樞·九鍼十二原』의 “五藏五俞, 五五二十五脈, 六腑六脈, 六六三十六脈, 經脈十二, 絡脈十五, 凡二十七氣, 以上下.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腧, 所行爲經, 所入爲合. 二十七氣所行, 皆在五腧.”²⁶⁾에서 찾을 수 있다. 『靈樞』에서는 五輸穴과 經氣盛衰의 關係를 言及하였으며, 五輸穴과 十二辰과의 相關關係를 把握하여 『靈樞·本輸篇』에 구체적으로 六十一穴²⁷⁾(心經의 五個腧穴은 缺少)을 提出하고 있다.

『靈樞』에서는 또한 十二個原穴과 五臟六腑의 主治意義를 강조하길 “五藏有六腑, 六腑有十二原, 十二原出于四關(肘膝), 四關主治五臟, 五臟有疾, 當取之十二原.”²⁸⁾이라 하였다.

『靈樞·歲露』에는 “人與天地相參也, 與日月相應也.”²⁹⁾라 하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주위환경에 적응하여 자연계와 통일을 유지하여 생활하는데, 外氣의 溫, 熱, 寒, 涼과 朝夕의 光熱의 強弱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은 十二經脈의 流注에 다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疾病時에는 “旦慧, 晝安, 夕加, 夜深”의 다른 표현이 나타나고, 人體의 氣血流注는 潮水와 같이 漲退節奏의 子時(23-1)에서 午時(11-13)로, 午時에서 子時로

25) 前掲書: 『黃帝內經靈樞譯解』, p551

26) 『上掲書』, p11

27) 『上掲書』, p25

28) 『上掲書』, p13

29) 『上掲書』, p596

23) 崔容泰 外22人 『鍼灸學』 集文堂 1988 p1147

24) 『上掲書』, pp1147-1148

의 時間에 따른 週期性盛衰에 따른 開闔은 人體 內部的 六陰經, 六陽經의 十二經脈氣血運行은 各 盛衰時間이 있는데 “晝夜節奏”의 生理現象과 恰似하다. 十二經의 氣血流注順序는 長기간 관찰과 경험의 결과로서 하루의 子에서 午, 午에서 子의 六陰陽經脈의 氣血流注盛衰의 時間이 고정되어 있으며 氣血이 各經의 時間代에는 盛하여 開하고, 時間이 지나면 衰하여 闔한다. 十二經의 氣血이 最高로 盛한 時間과 結合하여 “肺經寅時, 大腸經卯時, 胃經辰時, 脾經巳時, 心經午時, 小臟經未時, 膀胱經申時, 腎經酉時, 心包經戌時, 三焦經亥時, 膽經者時, 肝經丑時” 滑伯仁의 歌賦³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黃帝內經』의 經氣盛衰의 規律은 子午流注의 盛衰開闔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素問·鍼解篇』에서 “補瀉之時與氣開闔相合也.”³¹⁾와 『素問·八正神明論』에는 經氣 流注의 盛衰에 따른 補瀉가 相應함을 지적 하였고, 또한 『素問·八正神明論』의 “瀉必用方, 方者, 以氣方盛也”³²⁾와 『素問·調經論』에서는 “瀉實者氣盛乃內針”³³⁾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子午流注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4) 運氣理論과 相關性

子午流注理論은 運氣理論의 干支 紀時 定時로 取穴하는 방식이며, 이론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 運氣理論의 氣化原理를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太過·不及으로 陰陽經의 定穴을 開함.

子午流注의 이론적 근거는 年干·日干·時干이

何經의 井穴을 開하는가를 결정하여 人體經氣와 運氣의 상관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納甲法”은 運氣學說 가운데 陰干과 陽干이 交代와 循環의 개념에 부합한다.

그 가운데 “陰進陽退”³⁴⁾³⁵⁾는 開穴 뿐만 아니라 運氣論의 主·客氣의 運行에 있어서 客退主進의 運行方向과 서로 비슷하므로 『素問·六微旨大論』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一步, 金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木氣治之. 復行一步, 君火治之”³⁶⁾라 하였다. 또한 五輸穴은 井·榮·輸·經·合으로 金·水·木·火·土(陽經), 木·火·土·金·水(陰經)으로 분별되며, 이는 子午流注에 있어 五輸穴의 開穴過程은 陽進陰退의 時辰開穴 原理에 따른 것으로 運氣理論과 相關이 있다.

② 司天·在泉之氣로 陰陽經穴을 互開

子午流注 納甲法 가운데 取穴方法은 陰陽이 互用되는 取穴法을 所謂 “夫病針其妻, 妻病針其夫.”라 하였다. 이는 夫妻五行關係를 甲己合化

34) 前揭書: 『鍼灸學』 p1150

乙日·乙酉時에 肝經의 井穴인 大敦이 開한 것은 “天干陽進 地支陰退”의 原理에 따라 甲日·甲戌時에서 天干은 甲에서 乙로 進하고 地支는 戌에서 酉로 退한 理由이다.

35) 子午流注 納甲法의 “陽進陰退 井穴爲始”에 대하여 살펴보면, 十二經脈의 氣血流注는 모두 井穴에서 始作되는데, 井穴을 開하는 時의 干支는 天干인 陽과 地支인 陰이 陽進陰退의 法則이 있다. 그러나 癸日에 있어서 時支의 陰退規則에 부합되는 癸丑時에 井穴이 開하는 것은 甲日에서 開穴하기 始作하여 九日을 經過하는 가운데, 每日은 一經을 主하며 每一經은 實際上 十一時辰만 主管하므로 甲日에서 癸日까지의 總一百二十時辰과 甲日에서 壬日까지 九日동안의 總九十九時辰 사이에는 二十一個時辰이 남게되어 癸日의 十一個時辰을 減하면 十個時辰이 남게되기 때문이다. 이에 流注循環의 連續性을 지키기 위해서 癸丑時辰에서 十個時辰後인 癸亥時辰에 湧泉穴이 開하게 되는 것이다.

36) 前揭書: 『黃帝內經素問譯解』 p518

30) 前揭書: 『鍼灸學』 p1147

31) 前揭書: 『黃帝內經素問譯解』 p392

32) 『上揭書』 p225

33) 『上揭書』 p465

土, 乙庚合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合火로 天干의 陰陽區分에 의하여 陰干은 妻가 되고 陽干은 夫가 된다. 때문에 陽時를 逢하여 陽穴을 取함이 本應이고, 陰時를 逢하여서는 陰穴位를 開하게 된다. 이 같은 “夫妻互用”의 原則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즉 陽時는 “妻閉”이고 陰時는 “夫合”의 같은 樣式으로 陽穴이 開한다. 그러므로 甲巳兩日과 乙庚兩日과 丙辛兩日과 丁壬兩日과 戊癸兩日의 陰陽經 穴位는 互補互用할 수 있으므로 “夫妻互用”이라 한다.

이러한 理論은 運氣論의 司天·在泉은 陰陽對待 關係에서 이론적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三陰이 在天하면 三陽이 在泉하고, 三陰이 在天하면 三陽이 在泉하여 각기 上司하고 下半年을 氣化한다. 이를 子午流注에 應用함에 있어 만약 上半年인 司天에 淫勝之氣가 三陽이 되면 즉 上半年은 陰經의 穴을 開함으로써 이를 制約한다. 반대로 司天의 淫勝之氣가 三陰이 되면 陽經의 穴을 開한다. 下半年 在泉의 淫勝之氣는 三陽이면, 下半年에는 陰穴을 開함으로써 이를 制約하니 이는 三陰이 陽穴을 開하는 것과 같다.

③ 五合을 應用한 經穴을 開閉

閉穴은 未至 或은 過時의 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陽日·陽時를 莫論하고 이미 陰時를 지나거나 或은 陰日·陰時가 지나 陽時의 未開한 穴位를 모두 閉穴이라 한다. 開閉穴의 方法은 子午流注 가운데 이미 上述한 “夫妻互用³⁷⁾”이 따라 甲己之合, 乙庚之合, 丙辛之合, 丁壬之合, 戊癸之合의 原理이다. 이와 같이 甲巳時, 乙庚

37) 前掲書: 『鍼灸學』 p1154

納甲法에 있어서 ‘陽日陽時用陽穴’과 ‘陰日陰時用陰穴’의 規則性에 벗어난 ‘陽日陰時’ ‘陰日陽時’의 開穴法을 李挺은 ‘夫妻互用法’과 ‘母子互用法’을 應用하고 있는데, 夫妻互用法은 十天干을 陰陽相合한 것이다.

時, 丙辛時, 丁壬時와 戊癸時는 便히 開閉穴의 原理에 適用한다.

예를 들면 乙亥時는 乙庚之合의 原理를 應用하여 乙亥의 本時인 中封穴이 開하고 庚午時는 陽溪穴이 開한다.

④ 運氣理論을 原穴의 擴大應用

子午流注의 規定은 逢俞함은 開原함이니, 卽 陽經의 俞穴이 開함은 반드시 值日 經의 原穴이 同時에 開함을 말한다. 所謂 “反本還原”³⁸⁾이라 함은 陰經은 本經의 俞穴이 同時에 開(陰經以俞代穴)하니, 이러한 規定은 原穴을 適用하여 制限을 받는다는 意味이다. 이는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必折其鬱氣, 先資其化源, 抑其運氣, 扶其不勝”³⁹⁾에 根據하는 것이다. 原穴은 바로 原氣가 所出하는 바이니, 原穴은 腎間動氣에서 導出되어 人體臟腑의 源이며 十二經絡의 根本이므로 原氣가 人體 臟腑經氣의 調整作用을 強調한 것이다. 이를 『靈樞·九鍼十二原篇』에서는 “五臟有疾 當取之十二原. 十二原者 五臟之所以稟 三百六十五節氣味也. 五臟有疾也 應出十二原 十二原各有所出.”⁴⁰⁾라 하였으니, 이는 原穴의 適用 範圍와 運用을 擴大한 것이다. 그러므로 運氣理論의 時間性 應用은 子午流注에 있어서 時辰에 따라 取穴하는 方法은 經氣의 盛衰가 自然界 氣化와 密接한 關聯性이 있다.

38) 『上掲書』 p1153

返本還原이란 陽經에서는 俞穴의 開始와 同時에 該當하는 本日의 本經原穴이 開하며, 陰經에서는 原穴이 없으므로 俞穴로 代身했으며, 開原穴하는 時辰은 開井穴以後 四個時辰後이다. 또한 ‘日干重見인 경우는 陽經은 모두 三焦로 納하고 陰經은 모두 包絡으로 納한다. 陽經에서는 陽經이 子가 되고 三焦의 五輸穴이 母가 되어 母生子하게 되며, 陰經에서는 陰經이 모두 母가 되고 心包經의 五輸穴이 모두 子가 되어 母生子하는 規則으로 開穴한다.

39) 前掲書: 『黃帝內經素問譯解』 p579

40) 前掲書: 『黃帝內經靈樞譯解』 p13

上述한 네가지 聯關性을 살펴보면, 子午流注法은 人體經氣의 盛衰에 따른 穴位의 定時開闔法이다. 즉 子午流注法은 運氣學說인 干支紀時에 進行하여 五輪穴과 상응되는 時間性 鍼灸法이며, 또한 五輪穴과 其他 經穴補瀉 方面의 應用한 理論으로 陰陽相貫과 剛柔相濟의 原則이 陰經과 陽經間의 同氣·異氣·五行의 生克關係가 結合하여 補瀉를 調整하는 것이다.

3. 奇經八法

1) 八脈交會穴

八脈八會穴은 金代 竇漢卿의 『鍼經指南』에 最初로 “流注八穴”·“交經八穴”로 記載되어 있으며, 明代 徐鳳의 『鍼灸大全』 卷四에 “竇文眞公八法流注”一章이 있으며, “八脈交會八穴”과 九宮·八卦·日時干支의 관계가 記述되어 있으며, 『鍼灸聚英』·『鍼灸大成』等에도 記載되어 있다⁴¹⁾.

八脈交會穴歌의 原文을 살펴보면 “公孫衝脈胃心胸⁴²⁾, 內關陰維下總同, 臨泣膽經連帶脈, 陰維目銳⁴³⁾外關逢, 後溪督脈內毗頸⁴⁴⁾,

41) 施士生 『鍼灸歌賦校釋』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7 pp86-87

42) 王森 外2人 『鍼灸歌賦集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p128

胃心胸란 脾, 心包, 衝脈, 陰維脈의, 循行路線中 相合하는 四經의 主治證인 心, 胸, 胃의 疾患을 治療할 수 있음을 意味한다.

43) 『上揭書』 pp128-129

目銳란 『八法交會八脈』篇中 “合于目銳眦, 耳後, 頰, 頸, 肩.”을 “目銳”로 間稱하였고, 臑, 三焦, 帶脈, 陽維의 循行路線中 相合하는 四經의 主治病症이다. 足臨泣(屬膽

申脈陽蹻絡亦通, 列缺任脈行肺系, 陰蹻照海膈喉嚨⁴⁵⁾”라 하였다. 즉 公孫·內關·臨泣·外關·後溪·申脈·列缺·照海의 八穴은 모두 四肢部에 있으며 八穴 가운데 四穴은 絡穴이고, 二穴은 五輪穴中 輪穴이며, 申脈 照海 二穴은 陽蹻, 陰蹻脈의 “所生” 部位이다⁴⁶⁾⁴⁷⁾.

임상적으로 列缺 照海는 主內 在里의 病을 主治하고, 後谿와 申脈은 主外 在表의 病을 主治하고, 外關 臨泣은 主轉樞 半表半裏의 少陽病을 主治하고, 公孫 內關은 心脾 兩經과 有關한 心胸 胃脘腹의 症狀을 主治한다⁴⁸⁾. 이러한 八脈交會穴中 經脈의 交會關係와 配穴法의 意味는 【圖表2】 다음과 같다.

【圖表2】 八脈交會穴中 經脈의 交會關係와 配穴法

經而通帶脈)與 外關(屬三焦而通陽維脈)二穴을 相配하여 目外眦, 耳, 頰, 頸, 肩等의 五個部位의 疾患을 治療할 수 있음을 意味한다.

44) 『上揭書』 p129

內毗頸란 『八法交會八脈』篇中 “合于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라 하였으니 小腸, 膀胱, 督脈, 陽蹻脈의 循行路線中 相合하는 四經의 主治症을 間稱한 것이다. 後溪(屬小腸經而通督脈)與 申脈(屬膀胱經而通陽蹻脈)二穴을 相配하면 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等의 部位主治症이 있음을 意味한다.

45) 『上揭書』 p129

膈喉嚨란 『八法交會八脈』篇中 “合于肺系, 咽喉, 胸膈.”라 하였으니, 이는 肺, 腎, 任脈, 陽蹻脈의 循行路線 가운데 四經의 相合하는 主治症을 間稱한 것이다. 列缺(屬肺經而任脈相通)與 照海(屬腎經而陰蹻脈相通)二穴을 相配하여 肺系, 咽喉, 胸膈의 三個部位의 治療效能이 있음을 意味한다.

46) 『上揭書』 pp128-129

47) 李時珍 『奇經八脈考校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所屬經	八穴	通八脈	會合部位
足太陰	公孫	衝脈	胃, 心, 胸
手厥陰	內關	陰維	
手少陽	外關	陽維	目外眦, 頰, 頸, 耳後, 肩
足少陽	臨泣	帶脈	
手太陽	後谿	督脈	目內眦, 項, 耳, 肩胛
足太陽	申脈	陽蹻	
手太陰	列缺	任脈	胸, 肺, 膈, 喉嚨
足少陰	照海	陰蹻	

① 公孫 內關

公孫은 脾의 絡穴이며, 足太陰脾는 三陰의 脈을 總領하고, 衝脈은 奇經八脈이다. 脾는 後天營衛之氣를 主管하며, 衝脈은 脾·腎·任·督脈과 一元三岐하며, 腎은 後天의 根本으로 任督이 陰陽을 總領하므로 衝脈은 十二經의 海가 된다. 內關은 心包絡의 絡穴이며, 手厥陰心包는 全身血脈을 統領하며, 陰維脈은 諸陰經을 維絡하여 諸陰이 交會하는 곳에서 起하며, 三陰과 交叉하고 더불어 任脈에 同歸한다. 血脈은 有形의 體로서 陰에 屬하므로 陰維脈과 心包絡은 通한다. 따라서 公孫은 足太陰脈이 發하는 곳이고 足陽明에 絡하며 衝脈과 通하며, 內關은 手厥陰脈이 發하는 곳으로 陰維脈과 相通한다⁴⁹⁾⁵⁰⁾.

② 臨泣 外關

臨泣은 膽經의 絡하며 足少陽膽은 帶脈과 相通하고 少陽은 樞經으로 能히 上下左右로 轉樞하고, 帶脈은 少陽에서 起하여 圍腰하여 速帶하므로 帶脈은 諸脈을 約束하여 經氣가 通暢하도록 調節作用을 한다. 外關은 三焦經의 絡穴이며 手少陽三焦經은 水穀氣血의 道路로서 上下表裏 陽經의 樞紐이며, 陽維脈은

諸陽의 脈을 維系하므로 手少陽三焦經과 陽維脈은 相通한다. 따라서 臨泣穴은 足少陽脈氣가 發하는 곳으로 帶脈과 通하고 外關穴은 手少陽脈이 發하는 곳으로 陽維脈과 相通한다⁵¹⁾⁵²⁾.

③ 後谿 申脈

後谿는 小腸經의 所屬이며 小腸經은 血府의 經이고 分別淸濁하고 小腸은 太陽經에 屬하고 陽이 最多하고, 督脈은 統率陽氣 統率眞元하므로 二經은 相通한다. 申脈은 膀胱經의 所屬穴이며 足太陽膀胱은 洲都의 職責이 있으므로 津液을 藏하고 氣化하여 能出한다. 陽蹻는 足太陽의 別脈으로 陽經의 蹻健의 脈이므로 二經은 相通한다. 따라서 後谿穴은 手太陽脈이 發하는 곳으로 督脈과 相通하며, 申脈穴은 足太陽脈이 所發하는 곳으로 陽蹻脈과 相通한다⁵³⁾⁵⁴⁾.

④ 列缺 照海

列缺은 肺經의 絡穴로서 手太陰肺經은 統乎諸氣하고 三陰을 統率하므로 任脈은 陰脈의 海이므로 二經은 通한다. 照海는 腎經의 所屬穴이며 腎은 先天의 本으로서 藏經의 場所이며 主納 藏精하고, 陰蹻는 足少陰의 別脈으로 陰經의 蹻健의 脈이므로 二經은 相通한다. 따라서 列缺穴은 手太陰脈이 發하는 곳으로 任脈과 通하며, 照海穴은 足少陰脈이 發하는 곳으로 陰蹻脈과 通한다⁵⁵⁾⁵⁶⁾.

2) 靈龜八法과 飛騰八法

- 51) 前掲書: 『針方六集校釋』 pp299-300
- 52) 前掲書: 『醫宗金鑑(下)』 pp549-550
- 53) 前掲書: 『針方六集校釋』 pp298-299
- 54) 前掲書: 『醫宗金鑑(下)』 pp550-551
- 55) 前掲書: 『針方六集校釋』 pp302-303
- 56) 前掲書: 『醫宗金鑑(下)』 pp551-552

49) 『上掲書』 pp300-301

50) 吳謙 醫宗金鑑(下) 大星文化社 1983 pp547-549

靈龜八法과 飛騰八法은 奇經八穴을 이용한 鍼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時間의 天干 屬性을 配合하여 靈龜八法이라 부르는 類型에는 洛書九宮歌⁵⁷⁾, 八法歌⁵⁸⁾, 八脈配八卦歌⁵⁹⁾, 八法五虎建元日時歌⁶⁰⁾, 八法逐日干支歌⁶¹⁾, 八法臨時干支歌⁶²⁾, 推定六十甲子日時開圖例 등이 있

57) 揚力 『中醫運氣學』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154
 『洛書九宮歌』“戴九履一，左三右七，二四爲肩，八六爲足，五居於中，寄于坤局。”라 하여, 『九宮歌』는 洛書의 配置를 說明하고 있는 詩歌인데 원래 徐鳳의 『鍼灸大全』에는 실려 있지 않던 것을 楊繼洲가 添加 한 것이다.
 58) 『上揭書』 p153
 『八法歌』“坎一聯申脈，照海坤二五，震三屬外關，巽四臨泣數，乾六是公孫，兌七後谿府，艮八系內關，離九列缺主”라 하여 『八法歌』는 八卦와 奇經八穴의 配伍를 說明한 詩歌로 역시 楊繼洲가 添加한 것이다.
 59) 蘇在振 外2人 『奇經八法에 관한 考察(Ⅰ)』大韓鍼灸學會誌 1994 第11卷 第1號 p13

『針灸大成·八脈配八卦歌』“乾屬公孫艮內關，巽臨震位外關還，離居列缺坤照海，後谿兌坎申脈聯，補瀉浮沈分逆順，隨時呼吸不爲離，仙傳秘訣神鍼法。”이라 하여 『八脈配八卦歌』는 前半部에서는 奇經八穴과 八卦의 配伍를 제차 強調하여 설명하고 後半部에서는 經氣의 虛實深淺에 따른 刺鍼法과 時間에 따른 開穴 및 呼吸補瀉의 重要性을 밝혀 놓은 詩歌이다.

60) 『上揭書』 p13
 『針灸大成·八法五虎建元日時歌』“甲己之辰起丙寅，乙庚之日戊寅行，丙辛便起庚寅始，丁壬寅逆順尋，戊癸甲寅定時候，五門得合是元因。”라 하여 『八法五虎建元日時歌』는 日(日)에 따른 時間의 干支를 定하는 方法을 말하는 詩歌인데, 甲己之日의 寅時는 丙寅時라는 方式이다.

61) 『上揭書』 p14
 『針灸大成·八法逐日干支歌』“甲己辰戌丑未十，乙庚辛酉九爲期，丁壬寅卯八成數，戊癸巳午七相宜，丙辛亥子亦七數，逐日支干卽得知”라 하여, 『八法逐日干支歌』는 日(日)의 干支에 따라 그 干支를 代表하는 숫자를 暗記하기 쉽게 만든 詩歌로서 靈龜八法의 운용에 사용되었다.

62) 前揭書: 『中醫運氣學』 p155
 『針灸大成·八法臨時干支歌』“甲己子午九宜用，乙庚丑未八無疑，丙辛寅申七作數，丁壬卯酉六順知，戊癸辰戌各有五，巳亥單加四共齊，陽日除九陰除六，不及零餘穴下推”라 하여 『八法臨時干支歌』는 時間의 干支에 따라 그 干支를 代表하는 숫자를 暗記하기 쉽게 만든 詩歌로서 역시 靈龜八法에 응용된다.

다⁶³⁾⁶⁴⁾.
 즉 靈龜八法은 八脈交會穴을 위주로 하는 一種의 按時配穴法이다. 이는 奇經八法에 使用하는 八穴이 주관하는 象數를 洛書九宮數와 文王八卦에 配屬하고 아울러 逐日各時의 干支를 살펴 開穴을 推산하는 鍼法이며 아래와 같은 【圖表3】으로 요약할 수 있다.

【圖表3】八穴配屬九宮表

八卦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方位	西北	西	南	東	東南	北	東北	西南, 中央
九宮數	6	7	8	3	4	1	8	2,5
八穴	公孫	後谿	列缺	外關	臨泣	申脈	內關	照海
八脈	衝脈	督脈	任脈	陽維	帶脈	陽蹻	陰維	陰蹻

飛騰八法은 八法八穴을 基本으로 하는 按時開穴의 配穴方法이다. 本法은 다만 當日 各時辰이 속한 天干을 알아서 곧 開穴을 求할 수 있으니 반드시 陽九, 陰六을 응용할 필요는 없고 十變開閉의 이치로 계산⁶⁵⁾하므로 비교적 靈龜八法보다는 간단하다. 八卦에 배속한 관계는 다음 【圖表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3) 前揭書: 『奇經八法에 관한 考察(Ⅰ)』 pp1-15
 64) 蘇在振 外2人 『奇經八法에 관한 考察(Ⅱ)』大韓鍼灸學會誌 1995 第12卷 第1號 pp49-51
 65) 『鍼灸大全』에서는 “愚謂奇經八脈之法，各有不相同。前靈龜八法，有陽九陰六，十干十變開闔之理，用之得時，無不捷效。後此飛騰八法，亦明師所授，故不敢棄，亦載於此，以示後之學者。”라 하여, 靈龜八法에 비하여 비교적 天干 屬性에 拘碍되지 않게 된 것이 飛騰八法이다.

【圖表4】飛騰八法按時配穴表

時干	甲 壬	乙 癸	丙	丁	戊	己	庚	辛
八穴	公孫	申脈	內關	照海	臨泣	列缺	外關	後谿
八卦	乾	坤	艮	兌	坎	離	震	巽

『鍼灸大全』의 飛騰八法歌에 따르면 飛騰八法도 역시 時間의 天干屬性을 이용하는 鍼法으로서 다만 靈龜八法과 다른 점은 靈龜八法이 日과 時의 天干을 모두 이용하는 점과 飛騰八法은 時에 該當하는 干支의 天干만을 應用한 점이 다르다. 이를 살펴보면 “飛騰八法歌與前法不同 壬甲公孫即是乾 丙居艮上內關然 戊午臨泣生坎水 庚屬外關震上連 辛上後谿裝巽卦 乙癸申脈到坤傳 己土列缺南離上 丁居照海兌金前 其法只取本時 天干爲例 假如甲己日戊辰時 卽取戊干臨泣穴 己巳時卽列缺 庚午時卽外關 餘皆倣此”⁶⁶⁾라고 하였다.

3) 運氣 理論과 相關性

子午流注의 取穴 原理가 運氣 理論의 時間性이 도입되었다면, 奇經 八法은 運氣 理論의 空間的인 效能을 띄고 있어 二者는 相補相成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奇經 八法의 基礎가 된 入脈 交會穴과 運氣學說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運氣의 正邪化日

運氣 理論은 現在의 時間과 空間의 氣化를 意味한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는 運氣 氣化가

正化日과 邪化日의 두 가지 氣化 現象을 논술하고 있다. 正化日에 대한 方位의 影響은 크지 않지만 邪化日에 方位의 影響은 매우 크다.

正化日에 대한 개념을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甲子 甲午歲, 上少陰火, 中太宮土運, 下陽明金. 熱化二, 雨化五, 燥化四, 所謂正化日也.”⁶⁷⁾라 하였다. 즉 甲子와 甲午年의 大運은 陽干으로 太過之年이며, 子午少陰君火가 司天(“上”은 司天)하게 된다. 즉 卯酉陽明燥金은 在泉하고 大運(中運)은 太宮(土運太過)하게 된다. 洛書 生成數와 相應하여 子午少陰君火가 司天하는데, 火의 生成數는 二이므로 말하길 “熱化二”라 하고, 大運은 土가 되는데 土의 生成數는 五이므로 말하길 “雨化五”라 하며, 卯酉陽明燥金은 在泉이 되는데 燥金의 生成數는 四이므로 “燥化四”라 한다. 따라서 當年의 勝도 없고 復도 없게 된다. 그 가운데 火化를 論하지 않았는데, 雨化와 燥化는 모두 生成數가 되며 太過의 表示도 없다. 그러므로 正化日을 말하길 正化는 즉 氣化가 正하게 됨이다. 이는 구체적인 方位에 災害克伐이 없음을 의미한다.

邪化日에 대한 概念을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乙丑, 乙未歲, 上太陰土, 中少商金運, 下太陽水, 熱化寒化勝復同, 所謂邪氣化日也.”⁶⁸⁾라 하였다. 즉 乙丑, 乙未年份은 丑未太陰濕土가 司天하고 辰戌太陽寒水로 在泉하며 大運(中運)은 金運 不及(少商)之年이 된다. 때문에 金運이 不及하면 火來하여 克金하며 또한 水來하여 復之한다. 此年은 勝氣와 腹氣가 있게 되는 特異한 氣化現象 즉 “熱化寒化勝復同”이 되므로 邪氣化日이라 지칭하게 된다. 災七宮은 바로 氣化의 非正常的인 根源이 金運不及에 있으므로 災

66) 徐風 『鍼灸大全』 人民衛生出版社. 1987 p82

67) 前掲書: 『黃帝內經素問譯解』 p603

68) 『上掲書』 p604

害가 金運에 加하게 된다. 金位는 洛書의 西方 兌卦에 相應하고 數로는 七이 되니 災七宮이라 말하는 것이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는 運氣 氣化 不及의 狀況을 나타내고 大運이 不及之化가 되어 恒常 여기에 相應하는 地方에 災害를 주게 되니 運氣 理論 가운데 風·寒·暑·濕·燥·火의 六化와 더불어 洛書八卦의 內核인 九宮과 相配하여 應用하고 있다. 이러한 受害의 方位와 『周易』의 洛書 八卦 九宮의 方位數字는 相同하게 되니, 예를 들면 金運不及은 “災七宮”, 土不及은 “災五宮”, 木運不及은 “災三宮”, 火運不及은 “災九宮”, 水運不及은 “災一宮”이다.

② 異常 氣化와 災害宮

奇經 八法은 八卦 方位의 取穴을 응용한 것이며, 取穴 方法의 方位는 現在 氣化의 優勢를 表現한 것은 아니다. 奇經 八法의 取穴法과 當年 運氣 氣化가 同步는 運氣 氣化 方位說과 서로 結合하게 된다.

이를 『素問·六元正紀大論』의 運氣 異常 氣化 方位說과 奇經 八法이 相配하여 取穴을 進行한다.

예를 들면 水運 不及之年인 辛巳·辛亥·辛卯·辛酉는 水氣가 不及하고 土氣가 克伐하는 勝氣와 木氣가 來復하는 異常氣化로 少尉 “雨化風化勝復同”이라 하니, 運氣異常 氣化 方位인 “災一宮”에 屬하게 된다. 이는 奇經 八法의 “坎一連申脈⁶⁹⁾”, “申脈膀胱通陽蹻⁷⁰⁾”하므로 足太陽膀胱經의 申脈穴에 相應하여 取穴하는데, 膀胱은 壬水에 屬하므로 補法을 施行하고 이로써 腎水를 增強하여 土性의 勝氣(雨化)를 防止하고 乘

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木運 不及之年인 丁未·丁丑·丁亥·丁巳는 所謂 “清化熱化勝復同”하여 “災三宮”에 屬하며, 奇經八法의 “震三屬外關⁷¹⁾”, “外關三焦通陽維⁷²⁾”와 結合한다. 火運 不及之年인 癸酉·癸卯·癸未·癸丑는 所謂 “寒化雨化勝復同”라 하여 “災九宮”에 屬하며, 奇經八法의 “離九列缺主⁷³⁾”, “列缺肺經通任脈⁷⁴⁾”과 結合한다. 金運 不及之年인 乙亥·乙巳·乙酉·乙卯는 所謂 “熱化寒化勝復同”라 하여 “災七宮”에 屬하며, 奇經八法의 “兌七後谿府⁷⁵⁾”, “後谿小腸通督脈⁷⁶⁾”와 結合한다. 土運 不及之年인 己卯·己酉·己丑·己未는 所謂 “風化清化勝復同”라 하여 “災五宮”에 屬하며, 奇經八法에는 五宮이 없으므로 脾經의 公孫穴을 取穴하며 補法을 施行하여 脾氣를 增強시켜 肝木의 勝伐之氣를 防禦한다.

따라서 奇經八法은 『周易』의 八卦方位와 運氣學의 干支紀時 取穴이며, 實際로 運氣氣化 理論과 結合된 部分은 없다. 그러나 子午流注가 時間적인 特色을 지녔다면 상대적으로 奇經八法은 空間의 우세를 반영하고 있다.

4. 運氣學說을 應用한 鍼灸治療法의 可能性

71) 『上揭書』 p1137

72) 『上揭書』 p1137

73) 『上揭書』 p1137

74) 『上揭書』 p1137

75) 『上揭書』 p1137

76) 『上揭書』 p1137

69) 前揭書: 『鍼灸學』 p1137

70) 『上揭書』 p1137

1) 五運의 勝復·鬱發 관계를 응용한 鍼法

만약 時間에 따른 五輸穴의 開闔과 運氣의 勝復·鬱發이 결함된다면, 五輸穴의 經氣 調整 調整을 통하여 人體의 陰陽을 조절할 수 있다.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太過之年의 勝復關係를 “不恒其德，則所勝來復，政恒其理，則所勝同化”⁷⁷⁾라 하였으며, 不及之年의 勝復關係를 “故乘危而行，不速而至，暴虐无德，災反及之，微者復微，甚者復甚，氣之常也”⁷⁸⁾라 하였다. 勝復關係란 勝氣와 復氣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運이 不及하면 本運을 抑制하는(勝)氣가 그 虛한 틈을 타서 이르는데 이를 “勝氣”라 하며, 勝氣가 極에 到達하면 衰退하여 本運의 子氣가 이르러 報復하는데 이를 “復氣”라 한다.

이러한 勝復·鬱發關係를 응용한 治療法을 살펴보면, 當年의 氣化가 어떠한 淫勝之氣인가를 살펴 五輸穴 가운데 五行 屬性을 이용하여 克勝氣의 穴位를 取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木運 太過之年은 五輸穴 가운데 이를 克制하여 勝之할 수 있는 金穴을 補하고, 同氣의 木穴을 瀉하며, 또한 木運 太過之年은 土鬱(脾鬱)의 時期가 나타나므로 마땅히 五輸穴 가운데 土의 俞穴을 補한다. 또한 木運 不及之年은 同氣의 穴을 取하여 木穴을 補하고, 金性인 復氣의 出現을 制約하고, 火性인 勝氣의 穴位를 應用하여 人體의 陰陽을 調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勝復·鬱發을 응용한 鍼灸 治療法을 要約하면 다음 【圖表5】⁷⁹⁾와 같다.

【圖表5】 五運의 勝復·鬱發 관계를 응용한 鍼法

十干	補	瀉
甲(土運 太過)	足臨泣(木:自賊) 俠谿(水:自鬱)	陽陵泉(土:自瀉)
乙(金運 不及)	中封(金:自補) 曲泉(水:勝補)	行間(火:自賊)
丙(水運 太過)	小海(土:自賊) 陽谷(火:自鬱)	前谷(水:自瀉)
丁(木運 不及)	少衝(木:自補) 少府(火:勝補)	靈道(金:自賊)
戊(火運 太過)	內庭(水:自賊) 厲兌(金:自鬱)	解谿(火:自瀉)
己(土運 不及)	太白(土:自補) 商丘(金:勝補)	隱白(木:自賊)
庚(金運 太過)	陽谿(火:自賊) 三間(木:自鬱)	商陽(金:自瀉)
辛(金運 不及)	經渠(金:自補) 尺澤(水:勝補)	魚際(火:自賊)
壬(木運 太過)	至陰(金:自賊) 委中(土:自鬱)	束骨(木:自瀉)
癸(火運 不及)	然谷(火:自補) 太谿(土:勝補)	陰谷(水:自賊)

2) 客氣六步를 응용한 鍼法⁸⁰⁾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卯酉之歲 上見陽明, 辰戌之歲 上見太陽, 巳亥之歲 上見厥陰. …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 是謂六元.”⁸¹⁾이라 하여 客氣 六步와 三陰三陽의 關係를 논술하고 있으며, 『素問五運行大論』에서는 “所謂上下者 歲上下 見陰陽之所在也.

77) 前揭書: 『黃帝內經素問譯解』 p560
78) 『上揭書』 p556
79) 五運 즉 十干에 해당하는 臟腑(甲膽·乙肝·丙小腸·丁心·戊胃·己脾·庚大腸·辛肺·壬膀胱·癸腎)의 自經에 있어서 勝復 補瀉만을 論하기로 하고, 六氣의 勝復 補瀉와 他

經 補瀉는 생략하기로 한다.
80) 客氣에 있어서 臟腑配合은 夫婦五行인 表裏關係가 成立 되며, 太過·不及의 觀點에서 따라 該管經의 自經補瀉만을 言及하고 他經補瀉는 省略한다.
81) 前揭書: 『黃帝內經素問譯解』 pp498-499

左右者 諸上見厥陰 左少陰 右太陽 見少陰 左太陰 右厥陰 見太陰 左少陽 右少陰 見少陽 左陽明 右太陰 見陽明 左太陽 右少陽 見太陽 左厥陰 右陽明⁸²⁾이라 하여 司天과 在泉의 關係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客氣를 응용한 鍼法은 主司하는 時間性的 差異에 따라 司天은 上半年(180일)을 주관하며 在泉은 下半年(180일)을 주관하고, 客氣 六步에 따른 各各 60日을 주관하는 客氣 鍼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巳亥之歲인 경우에 司天·在泉을 응용한 鍼法⁸³⁾을 살펴보면, 上半年은 厥陰風木이 司天이 되므로 肝膽木經의 木穴을 瀉하고 下半年은 少陽相火가 在泉이 되므로 心包·三焦相火經의 火穴을 瀉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圖表6】과 같다.

【圖表6】 客氣 六步를 응용한 鍼法

司天	臟	腑	在泉	臟	腑
厥陰 風木	大敦 (肝木)	足臨泣 (膽木)	少陽 相火	勞宮 (心包)	支溝 (三焦)
少陰 君火	少府 (心)	陽谷 (小腸)	陽明 燥金	經渠 (肺)	商陽 (大腸)
太陰 濕土	太白 (脾)	足三里 (胃)	太陽 寒水	陰谷 (腎)	通谷 (膀胱)
少陽 相火	勞宮 (心包)	支溝 (三焦)	厥陰 風木	大敦 (肝)	足臨泣 (膽)
陽明 燥金	經渠 (肺)	商陽 (大腸)	少陰 君火	少府 (心)	陽谷 (小腸)
太陽 寒水	陰谷 (腎)	通谷 (膀胱)	太陰 濕土	太白 (脾)	足三里 (胃)

3) 六十甲子를 응용한 鍼法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天氣始於甲 地氣始於子 子甲相合 命曰歲立 謹候其時 氣可與期”⁸⁴⁾라 하였으니, 五運의 勝復·鬱發 關係를 이용한 鍼法과 客氣 六步를 이용한 鍼法을 결합하면 다음 도표와 같은 六十甲子를 응용한 鍼法이 성립 될 것이다.

예를 들면 甲子之歲의 경우에 甲은 土運이太過이므로 自經의 土穴인 陽陵泉을 瀉하고 自經의 賊性穴인 足臨泣과 水鬱을 막기 위하여 俠谿를 補하며, 上半年은 少陰이 司天이므로 火經의 火穴인 少府와 陽谷을 瀉하며 下半年은 陽明이 在泉을 主司하므로 金經의 金穴인 經渠와 商陽을 瀉하여 人體의 陰陽을 調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를 요약하면 다음 【圖表7】과 같다.

82) 『上揭書』 p502

83) 運氣論의 司天·在泉은 陰陽對待 關係에서 이론적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三陰이 在天하면 三陽이 在泉하고, 三陰이 在天하면 三陽이 在泉하여 각기 上司하고 下半年을 氣化한다. 그러므로 臟腑의 陰陽 關係 配屬에 있어서도 三陰三陽의 理論에 따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만약 上半年인 司天의 淫勝之氣가 主司하는 경우는 其經의 穴을 瀉하고 在泉의 穴을 補 함에 있어서 陰陽의 制約性을 찾을 수 있다.

84) 前揭書: 『黃帝內經素問譯解』 p522

【圖表7】六十甲子를 응용한 鍼法.

六十 甲子	補	瀉	六十 甲子	補	瀉
甲子	足臨泣·俠谿	陽陵泉·少府·陽谷	乙丑	中封·曲泉	行間·太白·三里
丙寅	小海·陽谷	前谷·勞宮·支溝	丁卯	少衝·少府	靈道·經渠·商陽
戊辰	內庭·厲兌	解谿·陰谷·通谷	己巳	太白·商丘	隱白·大敦·足臨泣
庚午	陽谿·三間	商陽·少府·陽谷	辛未	經渠·尺澤	魚際·太白·三里
壬申	至陰·委中	束骨·勞宮·支溝	癸酉	然谷·太谿	陰谷·經渠·商陽
甲戌	足臨泣·俠谿	陽陵泉·陰谷·通谷	乙亥	中封·曲泉	行間·大敦·足臨泣
丙子	小海·陽谷	前谷·少府·陽谷	丁丑	少衝·少府	靈道·太白·三里
戊寅	內庭·厲兌	解谿·勞宮·支溝	己卯	太白·商丘	隱白·經渠·商陽
庚辰	陽谿·三間	商陽·陰谷·通谷	辛巳	經渠·尺澤	魚際·大敦·足臨泣
壬午	至陰·委中	束骨·少府·陽谷	癸未	然谷·太谿	陰谷·太白·三里
甲辛	足臨泣·俠谿	陽陵泉·勞宮·支溝	乙酉	中封·曲泉	行間·經渠·商陽
丙戌	小海·陽谷	前谷·陰谷·通谷	丁亥	少衝·少府	靈道·大敦·足臨泣
戊子	內庭·厲兌	解谿·少府·陽谷	己丑	太白·商丘	隱白·太白·三里
庚寅	陽谿·三間	商陽·勞宮·支溝	辛卯	經渠·尺澤	魚際·經渠·商陽
壬辰	至陰·委中	束骨·陰谷·通谷	癸巳	然谷·太谿	陰谷·大敦·足臨泣
甲午	足臨泣·俠谿	陽陵泉·少府·陽谷	乙未	中封·曲泉	行間·太白·三里
丙申	小海·陽谷	前谷·勞宮·支溝	丁酉	少衝·少府	靈道·經渠·商陽
戊戌	內庭·厲兌	解谿·陰谷·通谷	己亥	太白·商丘	隱白·大敦·足臨泣
庚子	陽谿·三間	商陽·少府·陽谷	辛丑	經渠·尺澤	魚際·太白·三里
壬寅	至陰·委中	束骨·勞宮·支溝	癸卯	然谷·太谿	陰谷·經渠·商陽
甲辰	足臨泣·俠谿	陽陵泉·陰谷·通谷	乙巳	中封·曲泉	行間·大敦·足臨泣
丙午	小海·陽谷	前谷·少府·陽谷	丁未	少衝·少府	靈道·太白·三里
戊申	內庭·厲兌	解谿·勞宮·支溝	己酉	太白·商丘	隱白·經渠·商陽
庚戌	陽谿·三間	商陽·陰谷·通谷	辛亥	經渠·尺澤	魚際·大敦·足臨泣
壬子	至陰·委中	束骨·少府·陽谷	癸丑	然谷·太谿	陰谷·太白·三里
甲寅	足臨泣·俠谿	陽陵泉·勞宮·支溝	乙卯	中封·曲泉	行間·經渠·商陽
丙辰	小海·陽谷	前谷·陰谷·通谷	丁巳	少衝·少府	靈道·大敦·足臨泣
戊午	內庭·厲兌	解谿·少府·陽谷	己未	太白·商丘	隱白·太白·三里
庚申	陽谿·三間	商陽·勞宮·支溝	辛酉	經渠·尺澤	魚際·經渠·商陽
壬戌	至陰·委中	束骨·陰谷·通谷	癸亥	然谷·太谿	陰谷·大敦·足臨泣

4) 三合五行을 응용한 鍼法

三合五行은 地支 셋이 모여 하나의 五行을 창조함을 뜻하는데, 五行의 本質 속에 유사한 목적을 가진 地支 셋이 결합하여 어떠한 목적에 따른 강력한 勢力을 형성하였다가 缺陷이 풀어지면 세력 역시 흩어지는 五行의 相合이다.

地支 三合의 構成 原理는 『六微旨大論』 “甲子之歲 初之氣 天數始於水下一刻 終於八十七刻半. 二之氣 始於八十七刻六分 終於七十五刻. 三之氣 始於七十六刻 終於六十二刻半. 四之氣 始於六十二刻六分 終於五十刻. 五之氣 始於五十一刻 終於三十七刻半. 六之氣 始於三十七刻六分 終於二十五刻. 所謂初六天之數也. 乙丑歲 初之氣 天數始於二十六刻 … 丙寅歲 初之氣 天數始於五十一刻 … 丁卯歲 初之氣 天數始於七十六刻 … 終於水下百刻. 所謂六四天之數也. 此戊辰歲 初之氣 復始於一刻 常如是無已 周而復始 … 是故寅午戌歲氣會同 卯未亥歲氣會同 辰申子歲氣會同 巳酉丑歲氣會同 終而復始.”⁸⁵⁾라 하여十二年 가운데 餘日이 1/4日 2/4日 3/4日 4/4日의 同類를 모아 子午卯酉의 水火木金에서 逆生한 것으로, 이처럼 三合五行은 十二地支의 配列 屬性에 따라 定하여진 勢力關係에 依하여 聚散하는 空間的 相互關聯性을 나타낸 것이다⁸⁶⁾.

따라서 이러한 三合五行의 原理를 鍼法에 적용하면 다음 【圖表8】 【圖表9】 【圖表10】 【圖表11】 과 같이 응용할 수 있다.

【圖表8】 火局을 응용한 三合五行 鍼法

三合	地支	補	瀉
水局	申	膀胱經의 水穴補 (足通谷)	膀胱經의 火穴瀉 (崑崙)
	子	膽經의 水穴補 (俠谿)	膽經의 火穴瀉 (陽輔)
	辰	胃經의 水穴補 (內庭)	胃經의 火穴瀉 (解谿)

【圖表9】 水局을 응용한 三合五行 鍼法

三合	地支	補	瀉
火局	寅	肺經의 火穴補 (魚際)	肺經의 水穴瀉 (尺澤)
	午	心經의 火穴補 (少府)	心經의 水穴瀉 (小海)
	戌	心包經의 火穴補 (勞宮)	心包經의 水穴瀉 (曲澤)

【圖表10】 木局을 응용한 三合五行 鍼法

三合	地支	補	瀉
木局	亥	三焦經의 木穴補 (中渚)	三焦經의 金穴瀉 (關衝)
	卯	大腸經의 木穴補 (三間)	大腸經의 金穴瀉 (少商)
	未	小腸經의 木穴補 (後谿)	小腸經의 金穴瀉 (少澤)

85) 『上揭書』 pp522-524

86) 朴瑛性 『東洋哲學基礎理論』 大田大韓醫科大學 1985 p99

【圖表11】 金局을 응용한 三合五行 鍼法

三合	地支	補	瀉
金局	巳	脾經의 金穴補 (商丘)	脾經의 木穴瀉 (隱白)
	酉	心經의 金穴補 (靈道)	心經의 木穴瀉 (少衝)
	丑	肝經의 金穴補 (中封)	肝經의 木穴瀉 (大敦)

III 結論

論者は『黃帝內經』의 運氣 理論을 應用한 鍼灸 治療法에 關한 研究를 進行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靈樞』의 鍼灸 避忌法은 人氣와 人神의 소재에 따른 理論이 後代 逐日·逐時에 따른 人氣와 人神의 盛衰를 살피 치료하는 時間 鍼灸法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運氣學說의 時間·空間 개념이 잠재된 鍼灸 領域은 子午流注와 奇經 八法이다.

둘째, 子午流注와 運氣 理論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人體 經氣의 盛衰에 따른 穴位의 定時開闔法으로 運氣學說인 干支 紀時에 進行하여 五輸穴과 相應되는 時間性 鍼灸法이며, 또한 五輸穴과 其他 經穴 補瀉를 응용한 이론으로 '陰陽相貫'과 '剛柔相濟'의 원칙이 陰經과 陽經間의 同氣·異氣·五行의 生克 關係가 결합하여 補瀉를 조정하는 것에 있다.

셋째, 奇經 八法에 있어 運氣 理論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周易』의 八卦 方位와 運氣學의 干支 紀時 取穴로 邪化日의 方位 그리고 異常 氣化와 災害宮에 八脈交會穴을 응용함은 運氣 氣化 理論이 결합된 부분이다. 그리고 子午流注가 時間的인 特色을 지녔다면 상대적으로 奇經 八法은 空間的인 背景이 전일보되어 運氣 鍼灸에 활용된 것이다.

넷째, 本論을 通하여 나타난 五運의 勝復·鬱發을 응용한 五運 鍼法과 客氣 六步를 응용한 六氣 鍼法과 運과 氣를 相合한 六十甲子를 응용한 鍼法 그리고 三合五行을 응용한 鍼法을 運氣 原理를 이용하여 鍼灸 治療法의 可能性을 提示하여 본다.

ABSTRACT

In the field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theory of taboo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 the basis of where the 'Qi' and the soul of the men(人氣·人神) exist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chrono-acupuncture and moxibustion(時間性鍼灸法)' that takes into account the thrift and retreatment of the Qi(氣) and the 'soul of the men' according to day and time.

The fiel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theory of 'Yun Qi(運氣)' which takes into account time space are the theories of the 'ZiWuLinZhu(子午流注)' and the 'LingGuiBaFa(靈龜八法)'.²

While the theory of the 'ZiWuLinZhu' has the nature of time, 'LingGuiBaFa' has the nature of space comparatively. So the theory of 'Yun Qi' adopted and improved the time-space background that is the basis of the theory of the 'ZiWuLinZhu' and the 'LingGuiBaFa'.

IV. 參考文獻

1.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成輔社 1980
2. 楊柳傑『黃帝內經靈樞譯解』成輔社 1980
3. 本間祥白 井上惠理校閱『難經之研究』正言出版社印行
4. 李時珍『奇經八脈考校注』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5. 徐鳳『鍼灸大全』人民衛生出版社 1987
6. 吳謙『醫宗金鑑(下)』大星文化社 1983
7. 吳崑『針方六集校釋』醫聖堂 1993
8. 揚力『中醫運氣學』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9. 林昭庚 外1人『鍼灸醫學史』北京中醫藥出版社 1995
10. 漆浩 外11人『子午流注·靈龜飛騰八法大全』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3
11. 施土生『鍼灸歌賦校釋』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7
12. 王森 外2人『鍼灸歌賦集注』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13. 崔達永 外1人『臟腑辨證論治』成輔社 1985
14. 朴琪性『東洋哲學基礎理論』大田大韓醫科大學 1985
15. 崔容泰 外22人『鍼灸學』集文堂 1988
16. 安昌範 外1人『子午流注鍼法에 對한 文獻的 考察』大韓鍼灸學會誌 Vol3
17. 蘇在振 外2人『奇經八法에 關한 考察(I)』大韓鍼灸學會誌 1994 第11卷 第1號
18. 蘇在振 外2人『奇經八法에 關한 考察(II)』大韓鍼灸學會誌 1995 第12卷 第1號
19. 黃瑀叙 外2人『子午流注納甲法에 關한 考察』大韓鍼灸學會誌 1997 第14卷 第1號